



광주 대졸 취업난 심화...고용시장 '꽁꽁'

7월 대졸 이상 취업자 25만5천명...2019년비 4만3천명 ↓
감소율 전국 '최고'...올 9급 지방공무원 경쟁률은 전국 1위

광주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광주지역 대졸 이상 취업자 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감소한 데 이어, 감소율 또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최근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인기가 시들어가는 공무원 응시율의 경우 광주가 전국 최대 경쟁률을 찍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시급함을 방증하고 있다.

15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행정구역(시도) 교육정도별 취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대학교 졸업 이상 취업자 수는 25만5천명이다. 2019년 7월(29만8천명) 대비 4만3천명(1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대졸 이상 취업자 수는 923만3천명에서 1천7만명으로 83만7천명(9.0%)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0만1천명에서 59만7천명으로 4천명(0.6%) 소폭 감소한 부산을 제외하고선 광주가 압도적으로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

연간 단위로 봐도 광주의 대졸 이상 취업자 수 감소세는 뚜렷하다. 2019년 광주의 대졸 이상 취업자 수는 30만2천명에서 2020년 29만1천명, 2021년 27만명으로 3년 연속 줄었다. 3년 동안 3만2천명(10.5%)이나 급감한 것이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전국 대졸 이상 취업자 수는 2019년 920만5천명, 2020년 929만6천명, 2021년 956만6천명으로 3년 새 3.9%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광주가 유일하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광주지역 산업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광주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은 314만원으로 전국 평균 월급인 358만원을 현저히 밑돌았다. 6대 광역시 중 5위에 머물렀다. 팔찌는 대구(309만원)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를 기준으로도 제주(290만원), 전북(308만원), 대구에 이어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낮은 청년 고용률도 취업자 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광주시의 청년고용률은 39.2%로 전국 평균 47.3%에 턱없이 못미쳤을 뿐만 아니라 인천(50.8%), 대전(47.0%) 등 6대 광역시 중 최하위에 그쳤다.

이처럼 낮은 고용률에 더해 양질의 일자리마저 찾기 힘들어 낮은 임금·처우 등으로 예전처럼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으로 광주지역 청년들의 구직 수요가 다시 불리고 있다. ▶2면에 계속 /양시원기자



광복절 경축 '만세삼창' 15일 오전 동구 충장로 광주극장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보훈단체, 독립유공자 등 광복회 관계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광주극장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 순수 민족자본에 의해 설립된 첫 극장으로, 해방 이후에는 김구 선생의 애국 강연회와 창극, 판소리 등을 극화한 공연을 주로 상연해 시대의 아픔과 울분을 토로하며 민족의식을 결집했던 역사적인 공간이다. ▶관련기사 5·7면 /김래리기자

광주·전남 코로나 사망자·위중증 급증

재유행 이후 확진자 폭증 여파 8월에만 44명 숨져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재유행 이후 사망자·위중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15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2천714명, 전남 2천782명 등 총 5천49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인 지난 13일보다 4천16명(광주 1천772명, 전남 2천244명) 줄어든 수치다. 광복절 휴일인 이날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광주 2천830명, 전남 2천953명 등 총 5천783명이다. 방역당국은 주말·연휴 병·의원 휴무에 따른 일시적 감소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광주·전남에선 지난 9일부터 5일 연속 1만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자별로 ▲9일 1만1천22명(광주 5천159명, 전남 5천863명) ▲10일 1만146명(광주 4천804명, 전남 5천342명) ▲11

일 9천275명(광주 4천40명, 전남 5천235명) ▲12일 9천788명(광주 4천396명, 전남 5천392명) ▲13일 9천512명(광주 4천486명, 전남 5천26명) 등이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세도 뚜렷하다.

지난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총 37명(광주 9명, 전남 28명)인 반면, 이달 들어 2주 사이에 44명(광주 16명, 전남 28명)이 숨졌다.

위중증 환자는 광주의 경우 지난달 25

일까지는 0-1명을 유지하다 31일 5명, 지난 14일에는 11명까지 증가했다. 전남 지역 위중증 환자(재원 기준)는 재유행 이전인 7월 초 2-3명에 불과했지만 7월 27일 두자릿수를 넘어선 이후 지속 증가해 8월엔 20명 안팎을 기록했으며 지난 14일 25명까지 늘었다.

7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광주·전남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광주시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의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김재정·박선강기자

함께 꿈을 이룰 가족을 찾습니다

21세기 뉴미디어를 선도하는 광주매일신문이 디지털 시대를 이끌 꿈이 큰 가족을 찾습니다. 창간 31년의 역사를 가진 광주매일신문은 호남지역 신문사 최초로 종이신문과 TV를 융·복합해 지방언론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가진 참신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 모집 분야: 편집국 취재기자(경력·수습)
- 지원 자격: 남자의 경우 군필 및 군면제자,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외국어·통계분석·정보활용 능력 우수자 우대, 당사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근무 예정지: 본사
- 전형 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제출 서류
 - 가. 이력서(사진 부착, 연락처 명기) 1부
 - 나. 자기소개서(세부 실무 경력사항 중심 작성, A4 2매 분량)
 - 다.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전학번 성적증명서 1부
 - 라.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 마. 경력증명서 1부
- 서류 접수
 - 가. 접수기간: 2022년 8월 17일(수)-8월 31일(수) 오후 5시
 - 나. 접수방법: 본사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가능
 - 다. 접수처: 광주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광주매일신문 경영지원국 인사담당자
 - 라. 문의전화: (062)650-2011-2012
- 기타 사항
 -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나.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 다. 이력서 상단 우측에 모집분야 명기
 -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음.

광주매일신문

오늘 일부 지역 시간당 50mm 집중호우

광주·전남 호우특보...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16일 오전부터 호우특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광주·전남에 대한 산사태 위기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다. ▶관련기사 2면

1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남하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16일 이른 오전부터 17일까지 광주·전남 전역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 이후 16일 오전 중 발표 예정으로 광주·전남에 호우 예비특보를 내렸다.

예상 강수량은 30-100mm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 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림청은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이와 함께 16일 자정부터 거문도와 초도엔 강풍특보가, 남해 서부 동쪽 바다엔 풍랑 특보가 발효될 예정이어서 야외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비는 주말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비는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강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 변동성이 커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안재영기자

Today	
민중화운동사랑방'봉심정'	6면
한전 올상반기 14조3천억 적자	12면
KIA 기아아구 가는 길 최대고비	16면

탄원서 존경하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

공모지침을 위반하여 공익사업으로 공모된 사업자 구성원을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를 구성원간 주식 다툼이라면서 사법판단에 맡기고 공모지침위반사항은 그대로 둔다면 공모지침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주)케이앤지스틸은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시작부터 컨소시엄에 참여 하였으며 빛고을중앙공원개발 회사의 지분 24%를 보유한 정식 주주회사입니다. (주)케이앤지스틸은 한양이 대여한 주식대금을 우빈산업이 대신 행사하였기에, 우빈산업을 믿고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하였으나, 우빈산업이 사익을 앞세워 대표주자간인 한양과의 분쟁으로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사익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단행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주)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의 주식대금을 이자까지 포함하여 모두 갚고 정당한 주주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우빈산업은 주식대금 상환의 담보에 불과했던 콜옵션을 대여금이 상환되었음에도 억지행사하고 주주명의를 변경시켜버렸습니다. 즉, 콜옵션행사 요건 자체가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억지주장으로, 우빈산업의 대표자가 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동일인임을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주주명의를 변경시켜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사업의 공동시행자이자 감독자인 광주시의 동의 없이 사업자 구성원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공모지침 '제안요청서 제2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사정이 이러한에도 광주시는 구성원간의 다툼이라고 하면서 공모지침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을 포기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백보 양보하여 사인간의 주식다툼은 사법적판단을 받는 그들간의 이해관계 다툼이라고 치더라도, 규정을 위반하고 공익사업의 분쟁을 유발하여 계속 사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행위는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차대한 광주 중앙공원조성사업의 최고 책임자이신 강기정 시장님!!
주주다툼이 생기면 공원조성사업에 불법이 자행되고 분쟁으로 사업이 위태로워져도,
행정은 과연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사법판단을 기다리고 손놓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언제까지 이런 명백한 공모지침위반의 불법행위를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2022. 08

주식회사 케이앤지스틸 대표이사 박상배 및 임직원 일동